

고용노동부 - 고용안정장려금(위라벨일자리 장려금)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고용장려금사업/고용안정형
- 소관부처/담당부서 : 고용노동부/고용문화개선정책과
- '21년 평가등급 : 양호

1 사업 주요 내용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목적)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임신, 육아, 학업, 가족돌봄 등)에 일정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기여
- (사업내용)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임금감소액 보전금(최대 24~40만원), 간접노무비(20만원) 및 대체인력지원금(30~60만원, 인건비의 80% 한도) 지원

□ 예산 및 재원: 고보기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B)	증감(B-A)	
	본예산(A)	추경	결산			(%)
□ 고용안정장려금	151,192	40,139	197,850	154,979	3,787	2.5
▪ 위라벨일자리 장려금	14,355	36,407	44,679 (98.3)	18,175	3,820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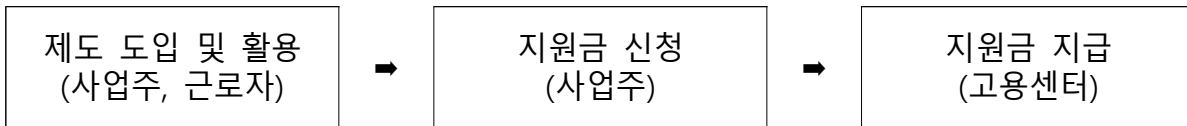
□ 추진근거

- 고용보험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호

□ 주요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임신, 육아, 학업, 가족돌봄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전달체계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 간접노무비 지원인원 한도를 정하여 예산배분의 형평성 도모
 - ('20) 지원한도 없음 → ('21) 지원한도 설정(피보험자의 30%, 최대 70명)
- 지급기간 “최대 1년”의 지원범위 명확화
 - 근로시간 단축개시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최대 1년간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근속기간 요건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통일되도록 개선
 - ('20) 근속기간 1개월 이상 → ('21)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초과근로에 대한 근태관리 요건을 개선하고 일부 지급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지급요건을 완화
 - ('20) 초과근로 월 20시간 이상, 출퇴근기록 월 5일 이상 시 부지급, 2회 이상 위반시 지급 제외
 - ('21) 초과근로일수와 출퇴근기록 누락일수를 합산하여 월 5일 초과 시 부지급, 2회 이상 위반시 지급 제외 규정 삭제(해당 월만 부지급)
 - * 초과근로 : 출근(퇴근) 시각에서 각각 15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로로 간주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자 현황

- (참여 근로자 수) '20년 기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최초 지원받은 근로자 수는 16,269명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전체 근로자 중 0.6%, 고용안정형 장려금을 지원받은 근로자 중 1.1%를 차지함.
- (성별) 여성 근로자의 지원 비중이 54.6%로 남성 근로자의 지원 비중 (45.4%)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별) 청년(39.7%)과 중년(51.6%)의 지원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장년(7.4%)과 고령(1.2%)의 지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표 1〉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참여 근로자 현황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고용장려금 전체	2,583,913 (100.0)	1,176,447 (45.5)	1,407,404 (54.5)	1,253,831 (48.5)	957,824 (37.1)	296,284 (11.5)	75,650 (2.9)
고용안정형 전체	1,544,811 (100.0)	642,233 (41.6)	902,516 (58.4)	797,478 (51.6)	504,824 (32.7)	191,128 (12.4)	51,137 (3.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16,269 (100.0)	7,392 (45.4)	8,877 (54.6)	6,466 (39.7)	8,396 (51.6)	1,204 (7.4)	203 (1.2)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참여 사업장 현황

- (참여 사업장 수) '20년 기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최초 지원받은 사업장 수는 2,897개소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전체 사업장 중 0.9%를 차지하며, 고용안정형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 중 1.5%를 차지함.
- (규모별) 300인 미만 사업장(98.0%)이 대다수이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참여도(2.0%)는 매우 낮은 편임.

- (산업별) 서비스업(73.2%)의 참여 비중이 높고, 제조업(23.9%) 및 건설업(2.8%)의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2〉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참여 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

유형	전체	규모별		산업별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고용장려금 전체	336,601 (100.0)	333,357 (99.0)	2,258 (0.7)	64,040 (19.0)	8,350 (2.5)	262,195 (77.9)
고용안정형 전체	188,202 (100.0)	186,963 (99.3)	546 (0.3)	27,975 (14.9)	3,117 (1.7)	155,680 (82.7)
워라밸일자리장려금	2,897 (100.0)	2,838 (98.0)	59 (2.0)	692 (23.9)	82 (2.8)	2,122 (73.2)

주1: 규모별, 산업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므로 각 비율의 합은 100%미만일 수 있음

□ 정량지표별 결과

〈표 3〉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정량지표 결과

(단위: %)

	고용유지율 (6개월)	고용증감률 ¹⁾	기업생존률 ²⁾
고용장려금 전체	81.2	25.3	84.8
고용안정형 전체	86.5	/	84.6
워라밸일자리장려금	94.0	/	88.6

주1: 고용증감율은 고용창출형과 고용유지형에서만 산출하며, 고용유지형은 종료 후 고용증감율로 산출

2: 기업생존률은 고용유지형과 고용안정형에서만 산출

3: 모성보호형은 고용유지율만 산출

□ 만족도 조사 결과

○ 항목별 만족도

〈표 4〉 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관리		
고용장려금 전체	4.20	4.19	4.19	4.36	4.21	4.17	4.05	4.16	4.28	4.16
고용안정 전체	4.23	4.21	4.20	4.34	4.20	4.19	4.12	4.14	4.29	4.17
고용안정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4.21	4.16	4.29	4.41	4.49	4.24	4.05	4.24	4.27	4.14

주: 1)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2) 전반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절대적 만족도: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사업에 대한 기대 대비 만족도

○ 만족/개선 항목 및 추천 의향

[그림 1] 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만족/개선 항목 및 추천 의향



주: 1) 만족항목

- 전체: 지원대상(28.8) > 지도수준(16.9) > 지도/관리(10.3) > 지원기간(9.8) > 신청절차(9.1) ; 없음(25.1)
- 안정: 지원대상(23.0) > 지원수준(14.6) > 지원기간(11.1) > 지도/관리(10.7) > 신청절차(9.8) ; 없음(30.8)

2) 개선항목

- 전체: 신청절차(8.6) > 지원기간(5.9) > 지원수준(4.8) > 지원대상(3.7) > 지도/관리(3.1) ; 없음(74.0)
- 안정: 신청절차(8.7) > 지원대상(4.5) > 지원기간(3.4) > 지원수준(3.3) > 지도/관리(2.3) ; 없음(77.7)

3) 추천 의향

- 전체: 4.29점, 추천(81.9=31.4+50.5) > 보통(15.4) > 비추천(2.7=2.1+0.6)
- 안정: 4.28점, 추천(80.7=30.1+50.6) > 보통(16.3) > 비추천(3.0=2.3+0.7)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정성지표별 평가결과

- (사업의 중요성) 전일제 근로자가 특정 사유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생활 균형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사업임

* 근로시간 단축사유: 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질병, 은퇴준비, 학업 등

- 장시간근로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민간의 근로시간 단축에 기여

* 연간 근로시간('19년): 한국 1,967시간, OECD 1,726시간

- 코로나19의 확산 및 예방에 있어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의 인력확보에 대한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사업

- **(일자리사업 성과)** 근로시간 단축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에 기여
 - (고용안정) 전일제 근무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임금감소액을 보전하여 근로자의 고용과 소득안정을 도모
 - * 위라벨일자리 장려금 지원인원: '02년 20,837명
 - (경영지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 간접노무비 및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 **(운영의 적절성)** 근로시간 단축 유도에 있어 사업주 지원과 근로자 지원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수준 및 물량이 확대되었음
 - (사업주 지원)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자지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 (지원인원 및 지원수준 상향)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코로나19 특례지침을 마련하여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인상
 - * (지원요건)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1개월 이상, (임금감소액 보전금) 24~40만원 → 40~60만원, (간접노무비)
 - (지원실적) 지역 및 업종, 규모에 있어 편중도가 높지 않게 비교적 고른 지원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지역, %) 서울 28.7, 경기 12.4, 경상 17.5, 충청 12.8, 전라 8.4, 강원 20.2
 - * (업종, %) 제조업 28.9, 도소매업 1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13.2, 정보서비스 10.1, 기타 34.3
 - * (규모, %) 10인 미만 25.0, 10~30인 미만 20.02, 30~100인 미만 19.1, 100~300인 미만 13.1, 300인 이상 22.7
- **(제도개선 노력)** 운영의 적절성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 대응, 지원수준 및 지원인원을 상향 조정
 - * (운영의 적절성) 참조
 - 근로시간 단축범위를 기존 15~30시간 이내에서 15~35시간 이내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선택범위 확대